패륜 대학생 부모 흉기 살해

영암경찰, 20대 검거 … 말다툼 뒤 아버지 살해, 범행 숨기려 어머니까지

강도사건 위장 패물 가져가 여자친구에 선물도

말다툼 끝에 자신의 부모를 둔기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패륜아(悖倫兒)'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28일 자신을 꾸짖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김모(24)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11시께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에서 영암군청 직원인 아버지(51·6급)를 둔기와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어머니 조모(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꾸짖은 아버지를 홧김에 살해한 뒤 지체장애인인 어머니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무려 27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강도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집에서 패물 20여점을 들고 나왔으며, 이중 목걸이와 반지 등을 여자친구(21)에게 선물로 주는 태연함을 보였다.

김씨는 범행 직후인 24일 밤 12시께부터 나흘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숨어지냈으나 28일 경찰에서 유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말했더니 '너나 잘하라'며 뺨을 때리길래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이 발각될까봐 어머니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24일 이후 나흘이나 귀가하지 않았고 대문이 잠긴 점, 방안의 장롱 문이 균일하게 열려있는 점, 부부의 시신이 각각 침대시트와 이불로 덮여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숨진 김씨의 EF소나타 차량에서 김씨 부부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범행 직후인 25·26일 차량에 가스를 충전한 영수증, 아들 김씨가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 집에서 들고나온 패물 20여점 등을 범행 증거로 확보했다.

영암 공무원 부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아들 김모(24)씨가 28일 영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영암군 농덕리 야산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수건 등을 불태운 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골프채를 인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흉기를 확보하기 위해 29일 저수지를 수색하는 한편, 무고한 어머니까지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군 제대 후 영암 모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최근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 부부는 성탄절 전날인 24일 오후 동료 직원들과 함께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귀가했으며, 28일 오전 9시15분께 동료 직원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김씨는 영암군보건소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부인 조씨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최근까지 집 앞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해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99엔이 웬 말이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8일 광주시 서구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엔이 웬 말이냐. 전범기업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을 했던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1천300원)을 지급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토착비리 뿌리 뽑는다

광주·전남 경찰 '신고센터' 개설

신종 퇴폐업소 단속도

경찰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자와 사이비기자 등 토착형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각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와 정보, 보안부서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한편,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주재로 매월 2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2차 단속에서 올해 1차 단속(8월 20일~12월 20일)때 미흡했던 고위 공직자들과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비위에 초점을 맞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전남경찰은 1차 단속에서 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6개 시·도 국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0명을 포함, 156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7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은 모두 26건에 141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병원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브로커와 공사 하자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기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은 내년 2월 말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골프장, 섹시바 등 신·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고보조금 편취 어민 등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2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김모(50)씨 등 어민 13명과 설비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1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어민들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적조 방제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비업체 대표들이 발급해준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아파트 주차장 40대女 사망

북부경찰, 국과수 감정 의뢰

'아파트 주차장 40대 여성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숨진 이모(여·40)씨의 정확한 사인(死因)과 사고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 우선 사고 주차장 노면의 경사도를 잴 예정이다.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1t 화물차가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물리적 힘 또는 작동에 의해 이동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경찰은 특히 유족 측의 주장대로 1t 화물차주 A씨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이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사고 이후 영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피해자"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해양폐기물 대금 2억 편취

수거업체 대표 등 5명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목포항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과정에서 서류를 꾸며 공사 대금을 가로챈 폐기물 수거업체 대표 김모(51)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목포항 해양폐기물 수거업체로 선정된 뒤 허위 증빙자료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목포항에서 진행된 수거작업 과정에서 실제 잠수부가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투입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택시 내 구토' 기사·승객 주먹다짐

쌍나팔

○…술에 취해 차안에 구토를 하려는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한 택시 운전사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서로 폭력을 휘두른 영업용 택시 운전사 정모(26)씨와 승객 박모(34)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A아파트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을 휘둘러 서로 상처를 입혔다는 것.

○…정씨는 술에 취한 박씨를 태우고 가던 중 박씨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밖에서 하라"며 A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세웠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기분 나쁘게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

광주 지산중 1학년 1반 아이들의 장애인 사랑

"'평화의 집' 돕기 공연·알뜰장터에 오세요"

체육대회 상금·운영비 등 모아 35만원 전달도

광주 지산중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이 비인가 장애인 시설인 '평화의 집'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1년동안 받은 각종 상금을 내놓은 데 이어 후원금 마련을 위한 공연과 알뜰장터를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광주지산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1반 남녀 학생 38명은 29일 오후 2시 35분부터 3시 20분까지 1시간여 동안 학교 시청각실에서 비인가 장애인시설 돕기 공연을 비롯한 '사랑실천 아나바다 알뜰 장터'를 연다.

이들이 돕기로 한 '평화의 집'은 학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으로, 맹인 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인가 시설인 탓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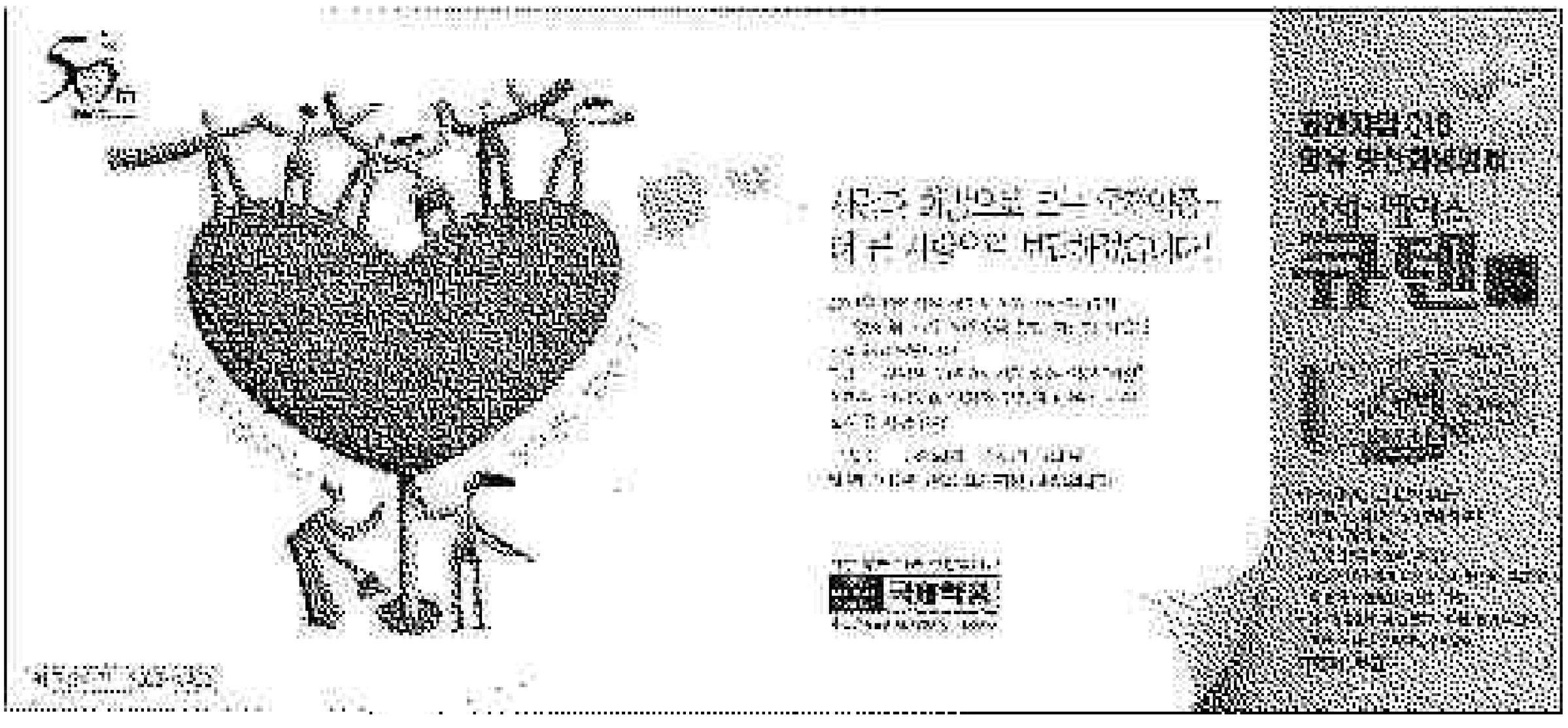
학생들은 '평화의 집'을 돕기 위해 1년 동안 35만여원을 모았다. 모금 내역을 보면 학급 운영비 잔액 5만원, 학교 체육대회 종합우승 상금 5만원, 400m 릴레이 1등 상금 2만원, 학생 성금 6천80원 등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들이 1년여 동안 준비한 공연도 알차고, 신선하다. 1년 교과 과정 속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불만합창과 개그 콘서트, 뮤직 비디오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짰다.

학생들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크리스마스 휴일도 반납하고, 학교에서 총 연습을 하는 등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그런만큼 학생은 1천원, 어른은 2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물론 공연 수익금은 전액 '평화의 집 돕기'에 쓰인다.

학생들은 또 평소 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알뜰 장터를 열고, 판매 후 남는 물건은 불우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에 모두 기증하기로 했다.

담임인 정희곤 교사는 "반 아이들과 연말에 뜻깊은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눔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